홍성보호관찰소

○ 매체 : 충청메시지(2026. 10. 28.)

○ 제목 : 홍성보호관찰소, “빵을 굽고 꿈을 키우고, 마음을 나누다”

홍성보호관찰소, “빵을 굽고 꿈을 키우고, 마음을 나누다”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제과제빵 체험·심리상담 결합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임현묵)는 28일 보호관찰청소년 9명 대상으로 제과제빵 직업체험과 심리상담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감정과 적성을 이해하며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는 시간을 활용해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단순한 직업체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장과 자아탐색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은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장(채선병)이 운영하는 제과제빵 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협의회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시설과 체험 공간을 협찬했다.

또한 협의회 감사로 활동 중인 문학박사 출신 구나경 위원이 네이탈차트를 활용한 자기이해 중심의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과 성향을 돌아보고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홍◯경(여, 17세, 가명)은 “직접 반죽을 만들고 빵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한편,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성보호관찰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2만 4천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해 참여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했다.

임현묵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호관찰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